



보도시점 2026. 3. 18.(수) 06:00
< 3.18.(수) 석간 >

배포

2026. 3. 17.(화)

MASGA 프로젝트 순항을 위해  정부도 맞손

- 산업정책실장, 펜실베니아주 경제개발부 장관 면담 -

산업통상부(장관 : 김정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26.3.18.(수) 08:00,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美 펜실베니아주 경제개발부 장관 릭 사이거(Rick Siger)를 만나 한-미간 조선협력 등 양국간 산업 협력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펜실베니아주는 美 현지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주요 조선기업 중 하나인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가 위치한 지역이다. 금번 릭 사이거 장관의 방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美 조선업 투자 촉진 등 조선협력 관련 진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주요 일정 : 한화오션 거제야드 방문(3.16) 등

필리조선소는 한화오션 등이 노르웨이 Aker社로부터 지난 ‘24.12월 인수한 조선소로 현재 훈련선, 중형탱커 등을 건조 중이며, 한화오션측은 부지 확장, 자동화 설비 확충 등을 통해 현재 연간 1.5척 수준의 생산역량을 연간 10척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박 실장은 우리 조선기업이 “MASGA* 프로젝트”의 진전을 위해 美 조선업 생산역량 확대, 인력양성, 공급망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였다. 무엇보다 필리조선소의 선도적인 역할을 위한 펜실베니아주 차원의 실효성있는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 美 조선업 재건을 위한 한-미 협력 프로젝트

먼저 확장공사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과 교통·전력수요 등 대응을 위한 선제적 인프라 구축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지난 2월 발표된 美 해양행동 계획(MAP)에서 제시된 해양번영특구(MPZ)로 ‘필리’ 지역 지정을 요청하고, 미국내 높은 인건비 등을 고려한 美 정부의 인센티브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미국 내 원활한 선박 건조를 위해 부품·철강재 등 조선기자재에 대한 관세 예외 등 검토를 요청하였다. 한국 정부의 기자재 수출 지원 사업*, 올해 개소 예정인 ‘한-미 조선협력 센터’와 연계한 협력 방안 제안하는 한편, 펜실베니아주의 우수한 대학, 연구기관들과 산업 AX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도 언급하였다.

* 중소 조선 및 기자재 미국 진출 지원사업(‘26~’28)

산업부는 MASGA 프로젝트가 양국이 모두 Win-win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우호적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美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책임자	과 장 이디도 (044-203-4330)
		담당자	서기관 염현호 (044-203-4332)
			사무관 허은재 (044-203-4335)